

OpenDoors

04

2022

VOL.240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탈북민 수호
"신앙의 자유를 찾아" (13)

박해와 선교현장
나이지리아(Nigeria)

현장스토리1
중동, "엽서 한 장이 가진 놀라운 능력"

현장스토리2
부활절특집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카톡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고난의 현장에 선 그리스도인

서창원 목사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원장)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장식이 아니다. 상흔이며 흔적이며 사단이 할취고 가는 불화살이다. 피할 수만 있다면야 좋으련만 되레 더 가중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할수록 부딪히는 맞수이다.

물론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당하는 아픔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삶이다. 잠시라도 휴전하자고 협상 테이블에 앉음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이다. 고난을 환영한다고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고난이 무서워서 도망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노래한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 때에 가서야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현장을 파하지 않으시고 결사항전의 의지와 힘을 드러내신다. 마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탈출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적과 싸움에 결연한 의지로 나서서 국민들을 독려하는 것과 같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 그가 온 몸으로 받아내신 십자가 고난은 죄인의 해방구였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고 모든 민족이 그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각 나라 각 족속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영화를 얻게 되었다. 이것을 실감한 사도들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족히 비교할 수 없는 미미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롬 8:18). 우리의 죄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히 12:2).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인하여 고난의 풀무 불에 던져진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몸소 받으시고 영광에 이르신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권면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공허한 소리로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참으라, 인내하라, 견디라는 말뿐이다. 주께서 곁에 서서서 강건케 하심을 믿는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진 풀무 불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다. 그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타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주셨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그런데 고난의 쓰디쓴 잔을 마시게 하는 것은 뭐란 말인가? 고난의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살아난 것이 아니다. 게 중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물론 순교자들은 하나 같이 원망보다는 감사를, 애통하기보다는 희망의 찬송을 노래하였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욕의 아내의 말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을까? 그들이 가질 미래와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불려냄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

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8-19).

그렇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고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확신이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보다 확실하게 드러낸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와 도움이다.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받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4:12-13).

이러한 연단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여 더 거룩한 시민이 되게 한다. 정금같은 일군이 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불같은 시험을 이긴 그리스도인을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도망치지 않는다. 사망이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며 너의 이김이 무엇이나 외치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고전 15:55-57).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을 보장한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함을 안다.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 것만이 아니라 그들 역시 우리의 같은 지체임을 확정하자.

공의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시련을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우신 홀이 그의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스스로 증명할 것이다. 그 때 음부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불행과 영원히 단절하고 의의 면류관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천군천사의 무리와 한 몸이 되어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드리 는 영광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은 복된 것이다.

CONTENTS

04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수기

-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13)”

08 박해와 선교현장 - 나이지리아

14 현장스토리1 - 중동 “엽서 한 장이 가진 놀라운 능력”

18 현장스토리2 - 부활절특집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22 Heart to Heart - 북한 파송 선교사 모집

23 희망의 선물

24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2022년 04월호 | 통권 240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사
사무총장 _김경복 선교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김지옥, 오현정, 문민환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김샛별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벌목 일은 정말 사람이 할 것이 못 되었다. 날마다 극심한 추위와 고된 노동을 견뎌야 했다. 산 아래에서 작업을 하는 날에는 배어낸 나무를 어깨에 매고 산등성이 위로 끌고 가야 되는데 워낙 무게가 있다 보니 거의 기어가다시피 끌고 갔다. 산 위에서 나무를 배어내더라도 그 나무를 어깨에 매고 산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데 무게도 무게지만 자칫해서 넘어지거나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그 또한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1조장이 되어서는 책임감까지 더해지며 매일같이 살아남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다. 공구수리도 맡아서 하게 되어 노동할 때 사용하던 쇠 밧줄을 수리하는데, 도끼로 쇠 밧줄을 내리칠 때마다 도끼가 튀면서 손 뼈마디도 같이 맞기 일쑤였기에 나중에 가서는 손 뼈의 모양이 변형될 정도로 부어 올랐다. 추위를 견디는 것도 지긋지긋했다. 추위가 독한 날에는 발에 동상이 심하게 걸려 진물이 나올 정도였지만 두꺼운 겨울 신발이 없는 죄수들은 얇은 여름신발로 한겨울 추위를 견뎠다. 시린 발을 비비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죄수들은 비닐박막을 발에 감싸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었다.

한번은 아주 심각한 장염을 앓았다. 바지에도 피 곪이 흐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고, 걷기도 힘들었다. 열이 펄펄 나는 상태에서도 출근하려고 일어섰는데 다리가 똑바로 서질 못하고 벌벌 떨려왔다. 그 모습을 본 죄수들이 그 반에서 나 대

신 다른 사람을 투입하여 대신 일하도록 했다. 들기면 큰일나는 일이었지만 다행히 걸리지 않고 넘어갔다. 그 와중에 얼마 전에 면회를 왔던 남편이 가져온 물건 중 페니실린 같은 진통제가 있길래 다른 죄수와 장염약으로 바꿔 먹어 간신히 살아남았다. 아플 때 바꿔 먹을 물건도 없는 죄수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싶었다.

출소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죄수들이 벌목반쯤 오게 되면 그동안 견여왔던 힘겨운 노동과 비인간적인 생활로 인해 인격이든 체력이든 거의 바닥이다. 더욱이 감옥살이를 10년, 15년 가까이 오래한 죄수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긴장해 있고 화도 잘 났다. 각종 범죄자들과 섞이어 모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비인간적인 노동 강도의 벌목일을 감당하다 보니 벌목 반 사람들은 유난히도 더 예민하고 사나웠다. 벌목반을 종종 만기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름처럼 오늘 출소하기도 하고 내일 출소하기도 하다 보니 다른 반보다도 화합이 참 안되고 개인주의에다 약육강식 정신이 더 심하였다.

이 와중에 교화소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동료 죄수들이었다. 감자반에서는 루디아 선생님과 옥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챙겨주고 보듬어주

었는데, 이것이 정서적으로 참 의지가 많이 되었다. 벌목반에 와서는 1조장이었던 내 밑에서 1분조장 역할을 했던 금자와 친해졌다. 처음에는 분도 잘 내고 다른 사람 해코지도 잘 하는 질 나쁜 친구인 줄로만 알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다. 감방 안이든 밖이든 내가 먼저 따뜻하게 다가갈 때 사람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덧붙여 벌목 반 담당 교도관도 엄하기 짝이 없었지만 알게 모르게 사람 좋은 면이 있어서 그나마 벌목 반 생활을 견뎠다. 이런 저런 모양으로 하나씩에서는 관계를 통해 격려하시고 도처에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셨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는 서서히 사라져가고 어느새 창문 밖에 꽃이 하나 둘씩 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기 전 눈길을 사로잡는 자연의 경치는 그 날 하루의 기분을 좌우했다. 내가 있었던 그 갑갑한 감방과 대조될 정도로 온갖 꽃들이 만발한 산 속이었다. 그 경치를 감상하는 그 찰나의 여유가 참 귀했다. 벌목 반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소소한 행복이었다.

벌목반에서의 몇 개월을 지내다 보니 어느새 출소 전 일주일 이 다가왔다. 출소 일주일 전에는 기존 방을 나와 출소 직전의 죄수들이 모인 방에 재배치된다. 일명 '종료 반'은 중증의 허약자들도 함께 머물도록 되어있는데, 침대 위쪽은 만기자들이, 아래쪽은 허약자들이 사용한다. 이 방에 따로 보내진 허약자들은 건강 상태가 매우 위급한 죄수들로 거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장기간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다. 허약자들에게는 일을 따로 시키지 않고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콩 비지를 한 국자 씩 줬다. 내가 만기자로서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보배언니가 그 곳에 허약자로 들어가 있었다. 나는 출소하기 전에 짐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사용하던 솜바지와 숨겨놓았던 음식물들을 보배언니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출소 전에 감자반이 이동하는 경

로를 알아 뚫다가 루디아 선생님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며 보배언니를 부탁했다.

출소하기 직전에 풍습처럼 으레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회충 제거이다. 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죄수들은 남은 물건을 팔아 회충약을 구해 다가 회충제거를 하고 나온다. 약을 먹고 화장실에 가면 한가득 해충만 나온다. 나도 물건들을 팔아 회충약을 구하는데 썼고, 남은 소지품들은 다 정리해서 감자반에 아끼던 옥자라는 동생에게 넘겨주었다. 그랬더니 옥자는 눈물을 머금고 나갈 때 입으라며 공공 아껴 두었던 속옷을 되려 챙겨주었다. 내가 곧 나간다는 소식을 접한 죄수 몇 명이 나에게 찾아와 주소가 적힌 쪽지를 전달해주며 자기를 소식 좀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집에 사정이 있어 아무도 면회 오지 않는 그 죄수들의 심정을 알기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챙겨서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흔한 이름도 아닌데 나와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은 세 사람이 종료반에 다 같이 모이게 되었다. 교화소가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터라 원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출소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날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우리 셋 중에 누구 네 집에서 먼저 데리러 오는가 내기를 하는 여유까지 부리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보통 출소 보름 전에 통지서를 띄워서 가족이 방문하도록 알리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담당 보안서에서 데리러 오는 것이 일반이었다.

꿈에서도 그리던 출소날이 되었다.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죄



<북한 교화소의 열악한 환경 인포 그래픽 (통일연구원 유튜브 캡처)>

수복을 벗고 몸 검사를 했다. 들어올 때처럼 나갈 때도 뽀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뒷짐을 진 상태로 앉았다 일어 서기를 반복하여 여성의 생식기나 항문에 숨긴 돈이 몸 밖으 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행위) 30번 지시를 받았다. 쪽지를 숨 기고 있었던 터라 매우 긴장되었지만 최대한 아무것도 드러 나지 않도록 온 몸에 힘을 주었고, 다행히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다. 쪽지가 걸리는 즉시 복역 기간 연장에다가 쪽지를 주 었던 죄수들에게도 무지막지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걸리지 않은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었다. 몸 검사가 끝나고 예 전에 집에서 남편이 면회 왔을 때 가져온 옷을 입었다. 감옥 안에서 입던 옷이나 쓰던 물건은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해서 옥자가 준 속옷을 가지고 나갈 수 없었던 것은 참 아쉬운 일 이었지만, 더 이상 삼색 죄수복을 입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으면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 마지막 절차로 서약서를 작성했다. 교화소에서 있었던 어떠한 일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서명하는 것이었다.

몸 검사가 끝나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도관이 내 이 름을 불렀다. “마리아! 나와!”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교도관 이 내 죄수번호가 아닌 내 신성한 이름 석자를 부를 때 내가 느낀 그 감정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내가 출소한 00 월 00일, 정말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난 날처럼 여겨졌다.

보통은 죄수들이 복도에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내 가 출소를 할 때 저 멀리서 만기 반 죄수들이 몽땅 복도에 나 와서 울면서 잘 가라는 인사를 해주었다. 어떻게 그 문이 열 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두들 나를 그렇게 배웅해준 것이 너 무 좋고 고마웠다. 보통 출소하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 지 다들 궁금해하기도 하고 친했던 죄수들은 인사도 할 겸 그 령게 배웅을 해주었던 것 같다. 나중에 듣고 보니 옥자를 포 함하여 나와 친했던 죄수들이 그렇게 울었다고 한다. 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뒤돌아보면 다시 들어간다’는 속설 이 떠올라 절대 뒤돌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시선은 정면을 보고 걸으면서 뒤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었다.

마지막 교도관은 내 손에 사탕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돈을 수 고비 랍시고 현찰로 쥐어 주었다. 교통비도 안 될 법한 돈이 었다. “도주는 자멸의 길이다”라고 쓰여 있는 철 대문을 나와 서 새 땅을 밟는 그 순간에 만감이 교차했다. 푸른 하늘이 눈 에 들어왔다. “주여, 다시 소생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인 생에서 정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삶이었다. 철 대문이

‘끼이익’하고 닫혔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종료반에서 누구 가족이 먼저 오는가 내기를 했던 동명삼인 중 가장 마음 설레게 먼저 온 것은 박씨 네 집이었고 그 다음 이 김씨 네였다. 나는 가장 마지막에 나갔지만 그래도 간발에 차로 오전 중에 남편이 데리러 왔다. 남편은 오토바이에 기 대 휘파람을 불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글프고 힘든 감정 이 물밀 듯 밀려오고 나를 부르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귀에 절 절하게 울리는 이 순간에 나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 기가 힘이 들었다. 남편은 근처 여인숙에서 모두부에 계란을 삶아와서 나를 챙겨주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모 두부 한 모를 금세 다 먹었다.

집으로 떠나기 전 남편과 함께 담양교도관 집에 들러 정중히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그 교도관은 악한 면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벌목반에서 조장을 하 면서 끝까지 제대로 조장 역할을 하고 출소한 사람은 나 밖에 없었을 정도로 치열했던 그 분위기 속에서 나를 은연 중에 도 와 주기도 했던 것이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다. 그런 작은 지 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남편이 빌려온 오토바이 덕분에 생각보다 일찍 집에 갈 수 있 었다. 원래 오토바이는 잘 사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사치 품이다. 그 자체로도 값이 꽤나 나가고 한 번 타기 시작하면 유지비나 연료비가 많이 들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단속과 벌금 의 대상이 되어 평범한 사람들은 좀처럼 갖기 어려운 교통수 단이다. 그러니 우리집에 오토바이 같은 고가품이 있을 리가 없지만 남편은 나를 데려가려고 동네의 한 젊은 분에게 대여 비를 지불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쓴살같이 달려온 것이다.

정신없이 달려가던 중 남편은 눈에 익은 어떤 동네에서 오토 바이를 멈추었다. 가방에서 소주를 꺼내 주면서 말하기를 출 소 일주일 전에 친정오빠가 갑작스럽게 원인 모를 심장마비 로 명을 달리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 령 내려앉았다. 살아나오면 볼 줄 알았는데… 오빠의 죽음에 정말 혼자가 된 것만 같은 공허함이 밀려왔다. 감옥에 갇hier 그 오랜 세월동안 서로 얼굴도 못 보았던 것이 미안하기도 하 고 안타깝기도 하여 그 자리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껴이꺼 이 울었다. 남편은 내가 다 울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어느 정 도 진정이 되자 오빠가 묻힌 곳을 향해 술을 붓고 인사를 하 였다. 남편의 배려가 참 고마웠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다



<북한 평안북도 구장군 어느 마을 눈덮인 밭 길을 걷고 있는 농부들>

시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집 쪽으로 향했다.

출소 며칠 전부터 날씨가 껏었는지 눈이 아주 많이 쌓여있었 다. 언덕 아래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언덕 위 집 쪽으로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낮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를 올려다 보니 시어머니가 창문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얼른 올라오지 않고 무엇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다. 처음 중국으로 간다고 작별인 사를 했을 때부터 어언 8년이 지난 세월동안 시어머니는 참 많이도 늙으셨다. 영영 울면서 그 미끄러운 오르막길을 두 손 으로 기는 듯이 올라갔다.

시어머니가 주시는 딱딱딱한 두부를 단숨에 먹어 치우고 삶은 찻 물에 목욕을 했다. 감방에 있었던 2년 내내 똥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 있다 보니 똥독이 오를 대로 올랐다. 뜨뜻 한 두부 찻 물에 몸을 담그니 꿈만 같았다. 다 씻고 깨끗한 몸 으로 집 안에 들어가 마침내 우리 아이들과 인사를 했다. 8년 만에 만났던 아이들은 엄마를 낯설어 했고, 나는 그런 아이들 을 그저 꼬옥 끌어안아주었다. 곧이어 시어머니는 저녁밥을 내오셨다. 오랜만에 따듯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리고 그리웠던 남편과 아들딸,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그 순간이 참 행복했다.

그런데 그 순간, 밥상을 치우려고 하는데 누군가 밖에서 문

을 두드렸다. 보위부 지도원이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 고 공포감이 밀려왔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본능적으로 고 민하기 시작했다. 오늘 겨우 출소하여 집안 식구들을 만났는 데 웬 보위지도원이 이 시간에 왔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보위직원은 별안간 남편보고 술을 가져오라며 나보고 그 동안 고생했다고 말했다. 그저 그렇게 인사하러 온 것이 다였 다. 나는 순간 밀려오는 황당함과 함께 화가 치솟았다. 이렇 게 남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와서 되도 않는 위로의 소리를 하 는 것이 아주 꼴도 보기 싫었다. “당신이 나한테 인사를 하려 면 당신네 집에 초대를 해서 인사를 하든지. 적어도 술을 권 하려면 술을 사오든지!” 라며 쏘아붙였고 그 지도원은 말문 이 막혀서 얼굴이 빨개지며 돌아갔다. 친척들도, 이웃들도 아 직은 찾아오지 않은 이 밤에 얼굴도 모르는 보위부 직원이 이 령게 느닷없이 찾아온 것이 참 불쾌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잠을 청하는데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이 게 꿈인지 생시인지… 8년의 세월이 유수와 같았다. 그렇게 보고싶고 갈망하던 가족들과 만나 한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참 꿈만 같았다. 감방에 두고온 친구들도 생각나고, 끝 까지 영영 울던 옥자, 허약반에 있던 보배언니, 신앙의 기둥 과 같았던 루디아 선생님… 어제 밤까지만 해도 낯새나는 감 방 안에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잤건만 오늘 내가 이렇게 여 기 가족과 함께 누워있다는 것이 참 꿈만 같았다. 만감이 교 차했다. 이렇게 무사히 나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 렸다. (계속)

Nigeria



폭력과 압력의 수준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 = 100).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의 압박, 인종-종교적 적대, 독재정권의 감시와 조직적 부패범죄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한 박해로 고통받고 있다. 시민, 특별히 기독교인을 향한 대부분의 폭력적 박해는 나이지리아 중부지역을 포함한 북부 지역에서 발생하며 보코하람(Boko Haram), ISWAP(The Islamic State in West Africa Province: IS의 분파로서, 서아프리카에 활동하는 IS세력), 풀라니(Fulani) 반군세력과 '반딧'(Bandits: 무장강도단)들에 의해서 자행된다. 이들의 폭력적인 박해는 살인, 부상, 강간과 여러 가지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농지 파괴와 재산 소실을 야기한다. 최근 몇 년간은 몸값을 노리는 유괴사건이 상당히 증가해 왔다. 이러한 폭력적인 박해의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잃고 추방되었고 모든 생계수단을 잃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재민(IDPs: Internally Displaced Peoples)이나 난민으로 살아간다. 나이지리아 북부지역, 특별히 샤리아 주들(Sharia States) 내에 사는 사람들은 2급 시민으로 분류되어

차별과 배척을 겪는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회심한 기독교인들은 또한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며, 기독교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으며, 빈번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다. 최근 몇 년 간, 폭력사태가 급격히 증가하며 남부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치안에 대한 불안감과 처벌 수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무하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정부 조직의 요직에 무슬림들을 배치함으로써,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풀라니족 목동들과 가축들을 남쪽으로 밀어내면서 목동들과 관계가 악화되고, 기후변화악화와 환경문제의 대두에 대한 반대로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폭력적인 박해가 발생되고 있다. 부하리 대통령 정권 아래에서 공격받은 기독교 공동체들은 연방 정부 산하 보안부대에 의해 더 심한 고초를 겪기도 한다.

국가 정보

지도자: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
(Muhammad Buhari)

인구:
211,447,000 명

주요종교:
기독교(46.4%), 이슬람교(46.3%)

정부형태:
연방 공화국

주 박해 요인:
이슬람의 압박, 민족-종교적 적대, 독재정권의 감시, 조직적 범죄와 부패



나이지리아 상황

종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98,006,000	46.4
무슬림	97,999,000	46.3
민족종교인	14,728,000	7.0
불가지론자	535,000	0.3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16년 동안의 군부통치가 이루어진 11999년까지 나이지리아의 민주화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범 진보의회당(APC: All Progress Congress)의 부하리(Buhari) 대통령이 취임한 후로, 기독교인들을 향한 공격은 더욱 심화되었다. 친 부하리 정권 노선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폭력선거와 독단적 규정 집행이라는 논란 속에서 부하리 대통령은 2019년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였다. 나이지리아는 지난 수 년에 걸쳐, 니

제르강 삼각주 일부 지역의 반란세력과 북부 지역의 이슬람 군사조직들과 전쟁 중에 있다. 부하리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반정부 무장세력들을 격퇴했다고 발표했지만 보코하람(Boko Haram)과 그 분파인 ISWAP(Islamic states in Western Africa Province)가 지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ISWAP 요원들이 라이벌인 보코하람의 지도자 아부바카르 셰кау우(Abubakar Shekau)를 살해했고, 이는 ISWAP 세력이 나이지리아 동북지역으로 확장되는 발판이 되었다. 나이지리아 북부 일부 주에서는 기독교인 농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풀라니(Fulani)군사조직의 습격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폭력적 박해가 일부 남쪽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기독교인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봉쇄를 통한 살인과 납치 사건들이 더해지면서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 박해의 급증은 기독교인들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격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은 실패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사하라 남부 국가들 중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빈곤은 아주 넓게 퍼져 있고 인구의 거의 80%의 사람들이 하루에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다.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심각하게 저 개발되어 있다. 부정부패는 만연하게 퍼져 있고 문제는 석유산업을 통한 수익분배 문제에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국제유가의 붕괴와 동시에 발생되었다. 여성의 조혼율과 십대 여성들의 임신율이 높다. 18%의 소녀들이 15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한다. 일부 기독교인 부모들은 딸들이 공격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딸의 조기 혼인을 선택한다. 이러한 선택은 여성의 교육의 기회를 앗아가고 여성의 권리를 무시하며 경제적으로 남성에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이지리아는 낮은 수명과 문맹률을 보이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세계에서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다. 지난 2020년 12월, 무력 충돌로 인해 270만 명의 국내 이재민(IDPs)이 발생했다. 2015 사이버범죄 퇴치를 위한 조치(2015 Cybercrime Acts)로 인터넷 사용의 자유가 제한되었고, 이 조치는 언론인과 블로거들을 임의로 체포하고 기소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미디어매체는 기독교인들을 이단종교인이나 신앙심이 없는 자, 시민의식이 떨어지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폭력적인 원리주의 이슬람 집단 지도자들의 기독교 혐오 발언이 소셜미디어에 넓게 퍼지고 있다.

인권탄압은 수많은 단체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대항하여 2014년부터 나이지리아 보

르노 주(Borno State)에서 이슬람국가(Islamic Caliphate)를 선언하며 체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보코하람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급습하여 크리스천 남성은 납치하거나 살해하며, 크리스천 여성들은 기독교인들의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납치하여 강간하고 자신들의 임무의 일환으로 강제 혼인을 맺는다. ISWAP 또한 비슷한 활동들을 하는데, 보코하람 지도자 쉐카우(Shakau)를 살해하며 이 지역 패권 장악의 발판을 마련하며 세력을 나이지리아 동북지역으로 확장하였다. 보코하람과 ISWAP 두 단체 모두 IS(Islamic State)에 충성을 맹세한 단체이다.

풀라니 반군세력(Fulani)은 북중부지역을 포함한 몇몇 북부 지역의 기독교 마을들을 공격하여, 납치, 강간, 살인은 물론 건물과 농작물을 파괴하고 농지를 수탈하였다. 이와 같은 폭력적인 박해가 급속하게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별 박해 상황 변화

나이지리아는 6개의 지정학적 구역들로 구성된다. 각 구역은 그리스도인과 타 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동북지역의 폭력적인 박해는 주로 보코하람과 ISWAP에 의해서 발생되고, 서북지역은 '반딧'(Bandits: 무장강도들)에 의해 발생된다. 카두나(Kaduna State)주를 포함한 북-중부 지역은 풀라니(Fulani) 군사조직에 의해 자행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매우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은 물론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연방 정부와 지방 주 정부들은 나이지리아가 샤리아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가 되도록 조심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3개의 북부 지정학적 구역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3개의 남부 지정학적 구역들로 이미 확대되고 있으며, 특별히 서남지역과 동남지역으로의 확장이 눈에 띈다.

박해를 받는 기독교 공동체들

외국인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의 기독교인들은 월드와치리스트박해지수(WWL2022)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역사적 공동체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성공회, 감리교와 루터교와 같은 개신교 교파가 포함된다. 이 범주의 공동체들은 군사조직들과 무장강도들(Bandits)에 의해 자행되는 삶과 재산 상의 폭력적 박해를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특별히 북부 구역과 북-중부 구역 내의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은 지역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풀라니(Fulani) 무장세력에 의한 토지탈취와 공동체 위협과 같은 교회를 향한 폭력적 박해가 남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들 대부분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가혹한 박해의 위험과 잠재적인 살해 위험 때문에 이들 개종자들은 빈번하게 '안전가옥'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거주자 대부분이 무슬림인 중앙-북부 구역을 포함한 나이지리아 북부지역의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살해 위협과 박해를 피해 종종 집과 거주지역을 떠나야만 한다. 이와 같은 박해는 서남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하지만, 남부지역에서는 북부보다 상대적으로 덜 발생한다. 나이지리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대한 압박이 있지만, 발생 빈도가 더 낮고 타 지역보다 박해 강도가 약하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들

현재 나이지리아 교회의 상당 부분은 복음주의 연합과 오순절주의 공동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중앙-북부 지역을 포함한 북부 지역 도시들의 복음주의와 오순절 공동체들은 군사조직과 무장강도들(Bandits)로부터 일상생활과 재산상에 폭력적 공격을 받는 것은 물론 지역 정부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다. 풀라니(Fulani) 무장세력에 의한 토지탈취와 공동체 위협과 같은 교회를 향한 폭력적 박해가 남부 지역 도시들로 확산되고 있다.

박해와 차별의 주 요인

이슬람의 압박, 민족-종교적 적대, 독재정권의 감시, 조직적 범죄와 부패

나이지리아의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인들 사이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12개의 북부 지역 주들은 샤리아법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풀라니족인 부하리 대통령은 이슬람 신자들을 정부 요직에 임명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역에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며, 기독교인들에 대한 위법행위들이 폭넓게 관용되고 주목받지 못하게 하면서, 비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초법적 태도의 문화를 조장한다. 정부관리들과 폭력적 종교집단들, 이념적 박해단체들이 그러한 것처럼, 민족주의 집단의 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4가지 요인 모두를 자행한다. 특별히 무슬림과 같은 비 기독교인 종교 지도자들은 비관용 사상과 폭력 조장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적 박해를 일으키고 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서는, 보코하람과 ISWAP와 같은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 일반 시민,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목표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풀라니 군사조직들은 중앙-북부 구역과 다른 북부 도시들, 그리고 일부 남부 지역 도시들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반딧(Bandits: 무장강도단)들 또한 폭력에 가담하고 있다. MACBAN(Miyetti Allah Cattle Breeders Association of Nigeria)은 막강한 지지자들을 갖춘 이념적 박해 단체로서, 풀라니 군사조직을 보호하고 그들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한다. 부하리 대통령 역시 풀라니 지지자 중 한 사람이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적 박해를 저지르는 자들에는 거리 폭력에 가담하는 시민 폭도들, 특별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폭도들과 정치집단,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 카르텔들이 포함된다.



남성과 여성의 박해 차이

여성

보코하람, ISWAP, 풀라니 군사조직과 반딧(Bandits: 무장강도단)들에 의한 공격은 특별히 북부지역 기독교 공동체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 여성들은 강간, 몸 값을 노리는 납치를 당하거나 살해된다. 크리스천 소녀들은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의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술로써, 군인들에게 납치되어 강제 혼인을 당한다. 일부 여성들은 자살폭탄대원이나 전투요원으로 강제로 투입된다. 강간당한 여성들의 남편들 역시 트라우마에 빠져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한다. 이들 남성들은 자신의 아내를 더럽혀진 여성으로 보기도 하며, 특별히 강간으로 임신을 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문제로 인해 많은 가정이 이혼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기독교 여성들을 향한 폭력적 박해가 남부지역에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 납치
- 독교 자료, 교육, 의례들에 대한 접근 거부
- 사회 공동체 및 네트워크 접근 거부
- 자녀 양육권 박탈
- 의료서비스 거부/제한
- 교육을 통한 차별/학대
- 사업/직장/고용 영역을 통한 경제적 박해
- 종교적 복장 착용 강요
- 강제 결혼 강요
- 마을/국가로부터 떠날 것을 강요받음
- 매춘 요구
- 인신매매
- 여행금지/이동제한
- 폭력에 의한 살인
- 신체적 폭력
- 정신적 폭력
- 성폭력
- 언어 폭력

남성

남성 그리스도인들은 보코하람, ISWAP, 풀라니 군사조직들과 무장된 강도들(Bandits)의 공격대상이 되며 살해당한다. 이는 현 세대의 남성들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기독교 가정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들 세력들의 박해로부터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테러 집단의 군사조직에 강제 편입되는 위협에 처하게 된다. 어린 소년들 역시 어린이 군인으로 고용되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 교회 지도자들은 납치당하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몸 값을 요구할 목적으로 빈번하게 납치되고 있다. 기독교인 남

성들은 또한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차별당하며 소외되고 있다. 남성이 살해당하면, 직업을 잃게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어, 그에게 딸린 모든 가족들이 빈곤에 처하게 된다.

- 납치
- 재산이나 유산 상속 거절
- 교육을 통한 차별/학대
- 사업/직장/고용 영역을 통한 경제적 박해
- 벌금부과를 통한 경제적 학대
- 정부에 의한 감금 및 투옥
- 양심에 반하는 군대 징집 및 복무 강요
- 폭력에 의한 살인
- 신체적 폭력
- 정신적 폭력

최근 5년간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및 박해지수 동향

년도	월드와치리스트 박해순위	비율지수
2022	7	87.3
2021	9	85.43
2020	12	79.98
2019	12	79.92
2018	14	71.17

지난 해 보다 올 해 순위가 2계단 상승한 이유는 폭력을 포함한 6개 영역 모두에서 박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특별히 폭력지수는 최대치인 16.7점을 기록했다. 나이지리아 북부지역의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과 불안전성은 남부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풀라니 군사조직과 '반딧'(Bandits: 무장강도단)들은 남부 숲지역에 자리를 잡고 기독교인 농업 종사자들의 공장 출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또한 크리스천 여성들과 소녀들을 위협하고 있다. 2022년 월드와치리스트 조사를 통해 기독교인을 비롯한 다른 소수민족들은 연방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국가 치안 기구를 통해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적 박해의 사례들

- 2021년 4월, '반딧'(Bandits: 무장강도들)으로 알려진 무장강도들이 카두나 주(Kaduna State)에 위치한 대부분 크리스천 학생들로 구성된 사립대학인 그린필드 대학교(Greenfields University)의 학생 22명과 교직원 1명을 납치하였다. 일주일 뒤, 납치된 5명의 학생들이 살해되었다.

- 2021년 8월, 플라티우 주(Plateau State)에서 풀라니 군사조직 일원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총격으로 이리그웨(Irigwe)부족 70명이 살해되었다.

년도	살해된 기독교인 수	정부에 의해 감금되거나 처벌받은 기독교인 수	강간이나 성적 학대를 당한 기독교인 수	국내 이재민이된 기독교인 수
2022	4,650	10	1,000	10,000
2021	3,530	25	1,000	1,000

이 표는 월드와치리스트 조사 기간 동안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발생한 폭력의 극히 일부 범주만을 포함한다.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은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내 자료실의 "WWL 2022 세계 기독교 박해 통계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건/사고들이 정확히 보고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WWL2022의 수치들은 최소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정확한 수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로는 훨씬 높은 수치가 예상되지만 여기에서는 어림 수 (1,000 또는 10,000)를 부여하였다.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의 삶

개인 영역

북-중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을 포함한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에는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박해나 살해위험을 피해 피신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 위험하다. 타 종교에서 개종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경우 이름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드러날 수 있다. 한 사람의 이름이 폭력적 이슬람주의 집단이 쳐 놓은 장애물 앞에서 삶을 의미하거나 혹은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방의 외딴 지역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실로 엄청난 두려움을 감수해야한다. 안전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국내 실향민/이재민으로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정 영역

북-중부지역과 남부지역을 포함한 북부 지역에 사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기독교인 가족들의 삶을 어렵게 한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이 드러날까 두려워한다. 이는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기독교인 여성이 남편을 잃으면, 무슬림 친척들은 그 여성의 자녀를 무슬림으로 키우려고 자녀를 데려간다. 이재민/실향민/난민 캠프에서 기독교인 부모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공동체 영역

나이지리아 북부지역(북-중부와 남부지역을 포함하여)에서 영어나 성경적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학교, 병원과 직장에서 빈번하게 차별을 당한다. 무슬림 거주지역에서는 크리스천은 거짓된 신앙인으로 취급되며 괴롭힘을 당한다. 기독교인 남성들은 '부도덕한 두발 상태'로 구금되기도 한다. 이슬람 지배 계층들은 크리스천 소녀와 강제 결혼을 하기 위해 납치를 모의하기도 한다. 정부의 편의시설들은 필요한 수준만큼 기독교 공동체에 제공되지 않는다.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식수 공급을 거부해서 기독교인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가야만 한다. 도심지역 내 기독교 지역에서도 기독교인들에게 위생시설과 같은 편의시설 사용을 거부하기도 한다. 또한 기독교인과 무슬림 인구가 동일한 곳 보다 무슬림 인구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인프라 설비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이재민/실향민들에 대한 구호품 분배에 있어서도 기독교인들은 배분에서 자주 제외된다.



국가 영역

기독교인과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공격하는 범죄들이 처벌되지 않고 체포되지 않는 면책 풍조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무슬림들이 쉽게 석방되거나 기소도 되지 않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살게 된다. 또한 기독교인에 대한 사법 재판권이 없는 이슬람 샤리아 법정에 기소되기도 한다. 나이지리아 헌법이 종교나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만, 나이지리아 북부 12개 주에 채택된 이슬람 샤리아법이 헌법을 대체한다. 미디어 매체들은 기독교 공동체들에 대한 공격을 '집단 내 갈등이나 충돌'로 보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슬림 소유의 미디어매체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슬림들의 공격들에 대해 축소하거나 왜곡 보도하기도 한다.

교회 영역

북-중부 지역을 포함한 나이지리아 북부지역에서는 교회들이 파괴되고, 목회자들(목회자 가족 포함)이 납치되거나 사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일들이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난다. 교회의 활동들은 감시되고 방해를 받거나 간섭을 받는다. 기독교인들은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한 토지 구매를 거부당한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과 공개적인 모임을 갖는 것은 교회와 교회 건물에 대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나이지리아 내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떠난다. 위법행위가 용인되고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과 무슬림이 아닌 다른 나이지리아인들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위험하다. 이러한 불안정성의 위험은 여러 남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국제법적 의무와 침해된 권리들

나이지리아는 다음의 국제 협약/규약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0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0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03. 고문과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국제 협약(CAT)

0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CEDAW)

05.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CRC)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나이지리아 정부는 기독교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실패하고 있다. (ICCPR Art.2)

-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살해당했다. (ICCPR Art.6)

- 기독교인 여성들이 강간, 집단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당했다. (ICCPR Art.7)

-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들의 기독교인 아동들이 이슬람의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도록 강요를 받았다. (ICCPR Art. 18 & CRC Art. 14)

-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들과 일부 남부 지역들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차별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ICCPR Arts.18 & 26)

기타 소수 종교적 공동체들의 상황

나이지리아 시아파 무슬림들은 시아파의 공격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수니파 무슬림들은 살해당하고 지도자들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의해 투옥되었다. 정부는 독단적인 법에 따라 활동하고자 하는 시아파 무슬림들을 대항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무력행동을 정당화했다. 기독교인들과 함께 정착한 풀라니 공동체 일원들은 때때로 기독교 청년들의 보복 공격에 직면하기도 한다. 아프리카 전통 종교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력 공격들이 발생한다는 여러 보고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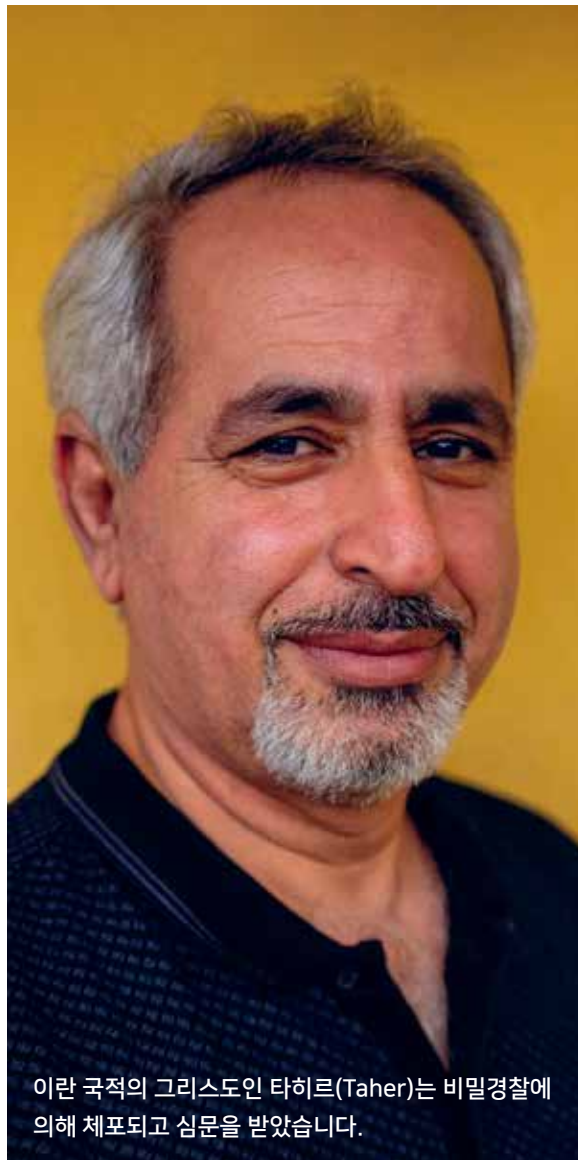


나이지리아에서의 오픈도어 사역

오픈도어는 1990년대 초부터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픈도어의 사역은 제자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박해받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을 위한 법률관련 지원, 박해 피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 치료 지원과 긴급구호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엽서 한 장이 가진 놀라운 능력

이란의 지하교회 비밀신자 '타히르(Taher)'가 여러분들이 보내준 응원의 편지에 보인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타히르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란 국적의 그리스도인 타히르(Taher)는 비밀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심문을 받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후원자들이 손으로 직접 쓴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편지들이 타히르 형제 앞에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타히르의 눈이 눈물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서야 전세계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이렇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네요.”라고 고백합니다.

저희 오픈도어는 작년에 타히르 형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소식지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타히르는 그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집을 습격하여 수색한 이란 비밀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심문을 받으며 지하교회 비밀신자 형제자매들의 이름을 말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누구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타히르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지도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타히르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대해 입을 닫고 복음전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타히르 형제와 가족은 이란에서 추방되었고 현재 터키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전세계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이렇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오픈도어 선교회는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후원자들의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 타히르를 만났습니다. 타히르와 그의 가족은 전세계에서 온 그들을 위한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타히르는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이렇게 사랑과 격려가 가득한 편지를 보내주시니, 이제야 많은 사

람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겠어요”라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이란 기독교인들로서 소외된 삶을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란에서 도망쳐 나온 후, 홀로 남겨진 군인 같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동 전역의 무슬림 문화권에서 성장하여 기독교로 회심한 크리스천이 되면 심한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됩니다.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끊임없는 거절감의 위협, 폭력과 감옥에 수감되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란은 오픈도어 월드 와치 리스트 2022 (WWL 2022) 박해 지수에서 9위에 오를 정도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경찰과 정부권력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신앙을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있는 타히르와 같은 비밀신자들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의 헌신적인 기도와 후원은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며, 여러분의 자비는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지켜나갈 용기를 갖게 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타히르는 전세계 크리스천들의 기도와 응원의 편지를 읽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된 기도와 후원으로 중동의 타히르처럼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박해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www.opendoors.or.kr)를 방문하셔서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함께 기도해주세요

- 타히르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타히르의 가족이 심문과 구금과 같은 박해를 견딜 힘을 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전세계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메시지가 타히르에게 참된 위로와 응원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한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타히르 형제를 가득 채워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STANDING STRONG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현장스토리 02

보코하람(Boko Haram)이 나이지리아 구야쿠(Guyaku)마을을 공격하자,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에 빠져 크게 동요되었습니다. 앤드류(Andrew) 목사는, “우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유래 없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박해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희망이 다시 피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은 무차별적이고 잔인합니다. 지난 해 4,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수천 명이 이상이 납치되었고 수 백 개의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박해는 감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올 해 발표된 오픈도어 월드 와치 리스트 박해 지수 순위에서 나이지리아는 지난 해보다 2계단 상승한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사는 것은 힘겨운 일이며,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코하람(Bokoharam)과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북부지역에서는 교회를 비롯한 민간마을과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에서는 풀라니(Fulani) 무장세력들이 토지를 몰수하고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 전역(Sahel, 사헬지대)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공격

보코하람(bokoharam)이 나이지리아 북부지역에 위치한 구야쿠(Guyaku)마을을 공격한 것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앤드류 목사는 소란 소리에 깨어 집 밖으로 나왔고, 마을 집들이 어둠 속에서 화염에 줄지어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건너편에는, 싱글 맘 차리티(Charity)자매가 세 아이를 싸매어 집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차리티 자매는 아이들을 데리고 무조건 산을 함께 향해 힘껏 달렸습니다. 공포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차리티 자매는 혼돈 속에서 세 아이 중 두 아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치는 차리티 자매 뒤에서는, 무장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집들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차리티 자매의 두 자녀가 실종되면서 그녀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속 동굴 속에 숨어서 숨을 죽인 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리티 자매는 잃어버린 두 아이들의 이름을 속삭여 불렀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리티가 아이들을 찾는 동안, 앤드류 목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곳의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도와주세요. 혹여나 아이들이 납치되었다면, 아이들의 믿음을 굳세게 지켜주세요”

“그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은 우리들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심어 주었어요”

상실감과 슬픔

너무나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참혹한 광경이 태양 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거의 모든 집들이 약탈당했고 불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차리티 자매의 두 자녀들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차리티 자매는 “아무것도 입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죽으면, 먹는게 다 무슨 소용이예요...”라며 차리티 자매는 슬픔을 토해냈습니다.

이를 지켜본 앤드류 목사님 역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 나이지리아 마을에 희망이 다시 피어 오르고 있습니다. 차리티 자매와 그녀의 세 자녀 테오필루스, 페이션트, 엘리자베스는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며,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희망이 솟아오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절날 무덤 속에 그대로 계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어둠 속에서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공격을 받은 뒤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차리티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실종되었던 그녀의 아이들이 살아서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해가 뜬 것 같아요”라며 차리티는 기뻐하였습니다.

나이지리아: 월드와치리스트 2022 박해지수 7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을을 떠났지만, 차리티는 구야쿠(Guyaku)마을을 남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목사님을 포함한 남은 몇몇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와 마을을 다시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목재들을 모으고 불탄 철판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부활시켰습니다. 불에 타고 남은 함석으로 만든 임시 지붕 아래에

서,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은 다시한번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절망의 삶이 희망의 삶으로 바뀌다

여러분들의 헌신된 기도와 후원을 통한 오픈도어의 지원사역이 한 마을 공동체에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테러단체의 공격 직후, 오픈도어는 긴급 구호품, 구호식품과 재건축을 위한 자원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보살핌, 기도와 후원은 앤드류 목사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을 수 없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이들 구야쿠 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몽같았던 기억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 치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치료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차리티자매는, “보코하람의 공격은 우리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

를 남겼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마음과 미래의 삶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차리티 자매는, 현재, 박해받은 다른 기독교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 그녀는 또 다른 박해받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차리티 자매와 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다시 선물할 수 있습니다. 박해 받은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삶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앤드류 목사님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희망이 다시 솟아나는 놀라운 체험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나이지리아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에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두운 땅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부활절, 여러분의 정기 후원과 기도가 절망과 어둠 속에 다시 희망이 솟아 오르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 차리티 자매와 그녀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나이지리아에서는 목회자들이 종종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보살피고 있는 앤드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 나이지리아의 교회가 사회의 압력에 맞서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강건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하나님의 희망이 아프리카 남부 사하라 지역 전역에서 솟아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 매월 5만원이면, 여성들의 직업훈련과 가족 부양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매월 14만원이면, 기독교 난민 가정에 안전한 거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매월 20만원이면, 트라우마 치료 상담을 통해 폭력피해 생존자들의 생활 개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큐알코드를 스캔해주세요



2022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굳세게 하라는 주님의 소명을 따라 선교하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는 기회가 될 북한선교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22년 4월 26일 - 7월 26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총 14강)
- **장소:** 온라인 진행, 오프라인 강의 참석 가능 (사당역/이수역 인근 강의 장소 예정)

■ 강의 내용 (예정)

Part1: 북한에 대한 이해와 선교적 접근

날짜	주 제	강 사
4/26	북한의 사상에 대한 성경적 접근	정종기 목사 (고신총회통일선교원 원장)
5/3	북한의 당과 군, 그리고 통제체제	심주일 목사 (창조교회 담임)
5/10	북한의 장마당 경제와 사회변화	최경희 박사 (사단법인 SAND연구소장)
5/17	북한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	유관지 목사 (북녘교회연구원장)
5/24	북한의 기독교 박해 실태 증언	김은진 사모 (뉴코리아 교회)
5/31	국내 탈북민 복음화와 통일선교	강 디모데 전도사 (연계이파통신교회 대표)
6/7	국제협력력을 통한 북한선교	정바나바 선교사 (국제CCC 시니어 간사)
6/14	해외 북한 동포와 선교	강동완 교수 (동아대, 강동완TV 대표)

Part2: 북한 선교의 현장

날짜	주 제	강 사
6/21	북한 선교 현장 개론	김성태 교수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6/28	미디어를 통한 북한 선교	성훈경 목사 (북방선교방송 대표)
7/5	북한 식량사태와 복음의 전도	김영길 목사 (NKCL 북한크리스천살리기운동 대표)
7/12	해외 북한 여성 사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7/19	북한선교 전방 사역	
7/26	북한 지하교회와 내지 선교	

- **수강 신청:** 3월 14일 - 4월 17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 **등록비:** 10만원 (목회자, 신학생,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문의:** 오픈도어선교회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info@opendoors.or.kr)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 (7,000₩ ~)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 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 40\$ (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02-596-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전화번호	
출금계좌번호	은행		주소		
출금액	10,000원	출금일선택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